

국별 리포트

파푸아뉴기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463천 Km ²	G D P	85억 달러 (2009년)
인구	6.70 백만명 (2009년)	1 인 당 GDP	1,276달러 (2009년)
정치체제	입헌군주국	통화단위	Kina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 (달러당)	2.76 (2009년 평균)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동북부에 있는 뉴기니섬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1975년 9월 호주로부터 독립한 영연방의 일원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금, 구리, 석유 등 광물자원 및 농림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광물 및 농림수산물의 수출 호조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광업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마레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등으로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2.3	7.2	6.7	4.5	6.8
재정수지 / GDP	3.2	2.5	-2.2	-0.2	0.0
소비자물가상승률	2.4	0.9	10.8	6.9	7.1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 하락

-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PNG)는 2003~06년 연평균 2.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채광 및 채석 산업의 경기 회복과 건설업의 강세에 힘입어 2007년 경제성장률이 7.2%로 급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6.7%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음.
- 2009년에는 호주,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침체, 상품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금, 구리,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 주요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4.5%로 하락하였음.

* 주요 수출대상국(2009년 기준): 호주 47.0%, 일본 14.7%, 필리핀 7.4%, 독일 5.1%

- 2010~11년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광업 및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 강세 유지, 대규모 LNG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경기 활발, PNG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강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PNG 정부는 2005~08년 중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얻은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회 및 인프라 개발계획에 대한 지출 용도로 유보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금으로 농업 분야 투자, 인프라 보수, 개선 및 개발, LNG 사업의 건설 지원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기록

- PNG의 재정수지는 정부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부수입 증가 덕분에 점차 개선되어, 2004년 흑자 전환 이후 2007년까지 거의 흑자를 유지해왔음.

* 재정수지/GDP: 2002년 -3.9% → 2003년 -1.0% → 2004년 1.5% →
2005년 0.0% → 2006년 3.2% → 2007년 2.5%

- 2008년에는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정부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수지가 GDP 대비 2.2%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정부지출 축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2%로 감소하였음.
-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PNG 정부가 개발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계획이나, 개발지출의 상당 부분을 신탁기금에서 충당하고 일상적인 지출은 다소 축소시켜, 총 정부지출은 2009년 67억 키나(약 24억 달러)에서 75억 키나(약 28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반면, 경기 회복 및 주요 상품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정부수입은 증가하여 정부의 목표인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키나화 강세와 식료품 및 연료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 우려 감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07년 중 연평균 1.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의 소매가격 급등으로 10.8%로 크게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중앙은행(Bank of Papua New Guinea: BPNG)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Kina Facility Rate: KFR)를 6%에서 8%로 200bp 인상하는 등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호주 달러 대비 키나화 환율의 상대적 강세와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9%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동년 12월 중앙은행(BPNG)은 기준금리를 7%로 100bp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시켰음.
- 2010~11년에는 경제성장세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식료품 및 연료가격 상승, 호주 달러 대비 키나화 환율의 약세, 정부의 개발지출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7.1%와 7.9%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앙은행(BPNG)은

정부의 개발지출 급증 및 대규모 LNG 사업 착공 등 향후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긴축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국제상품가격 및 주요 통화 환율의 등락에 따라 키나화 변동 예상

- 키나화 환율은 2007~08년 중 호주 및 미국 달러,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경제성장세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키나화 환율의 강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 및 주요 거래통화의 환율 등락폭 확대 등으로 인하여 키나화의 환율 변동도 당분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010년에는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화 환율의 강세 전망이 반영되어 키나화 환율은 미 달러화 대비 강세, 호주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이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BPNG)이 필요시 키나화의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림수산업 및 광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 PNG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GDP의 34%)과 광업(GDP의 28%)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급자족 및 영세 자영농으로, 높은 실업률과 함께 미개발 농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금, 구리, 원유 등 광물 및 임산물이 총 수출의 약 80% 수준에 달하여,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과 광물 및 임산물의 생산량 기복이 PNG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작은 경제규모 및 저조한 인적자원 개발

- 2009년 GDP가 약 85억 달러로 경제규모가 작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며, 2008년 기준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GDP의 70% 이상으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외 변동요인에 매우 취약함. 단,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 총수출/GDP: 2008년 78.7%, 2009년 53.3%

* 총수입/GDP: 2008년 70.7%, 2009년 61.2%

- 인구는 670만 명 정도로 오랜 고립생활로 소규모의 부족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생계 위주의 생산활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 비공식적인 부문의 자영농 인구가 많으며 2002년 이후 광업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여 2004~07년 연평균 10%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열악

- 도로의 85% 이상이 미포장 상태이고 철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력은 일부 주요 도시에만 공급되고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교통, 전력, 통신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PNG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금, 구리, 석유 및 가스 등이 있음. 광업 개발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에 따라 호주,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2010년에는 Ramu 니켈광산 및 Hidden Valley 광산의 생산이 개시되고, Lihir 광산 등 기존 광산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LNG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 엑슨모빌(ExxonMobil)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PNG의 LNG 사업은 가스 생산과 가공 설비, 육상 및 해안 파이프라인 및 연간 660만 톤 용량의 액화 설비가 포함된 통합 개발사업임.
- 동 사업은 PNG 정부 및 7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12월 대출기관들과 금융계약이 완료되었고 LNG 구매자측과도 공급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설비 건설 등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진행될 계획임.
- 특히 LNG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30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사업은 향후 이러한 가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PNG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 정책 성과

□ 사회 및 인프라 개발계획을 위한 정부지출 계획

- PNG 정부는 2005~08년중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한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농촌 경제 강화 및 변화를 위한 사회 및 인프라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우선지출계획자금(신탁기금)으로 유보해 두었음.
- 2010년 PNG 정부는 동 자금으로 농업 분야 투자, 인프라 개발, LNG 사업의 건설 지원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443	194	768	-459	-31
경 상 수 지 / GDP	8.0	3.2	9.7	-5.4	-0.3
상 품 수 지	2,214	2,119	2,665	1,509	2,391
수 출	4,204	4,748	5,805	4,326	5,843
수 입	1,990	2,629	3,140	2,817	3,452
외 환 보 유 액	1,401	2,054	1,953	2,561	..
총 외 채 잔 액	2,355	2,215	1,418	1,436	1,485
총외채잔액/GDP	42.6	36.0	17.8	16.8	15.4
D. S. R.	7.9	8.1	15.6	10.6	8.9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기록

- PNG는 꾸준한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006년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3년 동안 20억 달러 이상의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 만성적인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해왔음.
- 2009년에는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여 외국인투자의 수익 및 배당금 송금, 외채이자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를 상쇄시키지 못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GDP 대비 5.4%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광업 및 석유 개발사업 관련 건설자재 등과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 외국인투자의 수익 및 배당금 송금 증가 등으로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 PNG의 총외채잔액은 2007년 말 22억 달러에서 2008년 말 14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증가에 따라 총외채잔액/GDP이 2007년 36.0%에서 2008년 17.8%로 크게 소한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D.S.R.도 2009년 10.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이 26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월평균수입액 6.7개월분을 기록함에 따라, 단기간 내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소마레 총리 사임 전망

- 2007년 총선에서 국민연합당(National Alliance Party: NA)이 승리하면서 마이클 소마레(Michael Somare) 당수가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여러가지 스캔들 연루 혐의로 야당의 사임 압력을 받아 왔음. 야당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소마레 총리의 축출을 시도해 왔으나, 국회 의석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의한 불신임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또한 2002년 정당 및 후보자 청렴에 대한 기본법(Organic Law on the Integrity of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소마레 총리에 반대하는 불신임안이나 법안에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음.
- 소마레 총리는 2012년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총선 이전에 사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임하기 전에 적절한 후계자를 육성하는 한편, 후계자 지명 과 관련된 여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 현 정부는 2010년 초 옴부즈맨위원회(Ombudsman Commission)의 권력을 사실상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여론의 반발을 샀으며, 동년 5월말 환경보전법(Environment and Conservation Act) 개정을 통해 자국의 토지 소유자보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환경보전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증거 없는 주장을 가지고 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음.

2. 사회동향

□ 부젠빌 지역 분쟁 가능성 상존

- PNG 본토의 동쪽에 위치한 부젠빌(Bougainville)섬의 주민들은 본래 자신들을 뉴기니섬 본토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할 때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부젠빌은 세계 제2위의 동광 매장량 보유 지역으로서, 1989년 중앙정부와의 동 광산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중앙정부가 무력 진압을 하면서 1998년 초까지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
- 1997년 휴전 합의 후, 2001년 8월 중앙정부와 부젠빌 반군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PNG 방위군의 철수, 무기 회수 및 폐기, 부젠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등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10년 6월 부젠빌 지역의 자치선거에서 존 모미스(John Momis) 전 주중대사가 52%의 득표율로 부젠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었음. 모미스 자치단체장은 기존에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과 함께 진행하던 무기 처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치 정부의 부패 척결과 재정관리, 부젠빌 인프라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3. 국제관계

□ 호주에 대한 원조 의존도 축소 노력

- 2008년 초 3년 만에 PNG와 호주간 연례장관포럼이 재개되는 등 호주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마레 총리는 호주와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
- 그러나 호주의 PNG 앞 원조정책은 개발지표 개선을 규정하는 등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PNG는 호주에 대한 원조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호주 정부 산하 해외원조기관인 호주 국제개발처(Australian Agency for Individual Development: AusAID)의 200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간 호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금을 받아 온 PNG는 정치적 안정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인적 개발 면에서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호주가 PNG에 지원하는 원조자금의 46% 정도가 자문관과 계약자, 역량개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지불된다고 밝혀 PNG 정부는 원조자금의 효율성에 관해 정밀 검토를 요청한 상태임.

□ 외교관계 다변화 추진

- PNG는 호주에 대한 원조와 무역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Look North'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ASEAN과 관계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ne China'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대만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0. 7)	D1 (2008. 12)
OECD	5등급 (2010. 4)	5등급 (2009. 4)
S&P	B+ (2007. 9)	B (2001. 8)
Moody's	B1 (1998. 12)	-

* I.C.R.G.: 66/140 (2009. 9) → 76/140 (2010. 1) → 79/140 (2010. 5)

* Euromoney: 146/186 (2009. 3) → 151/186 (2009. 9) → 149/186 (2010. 3)

* I.I.: 109/177 (2009. 3) → 101/178 (2009. 9) → 97/178 (2010. 3)

- PNG의 재정상태 및 대외거래 지표 개선, 정치 안정 등을 반영하여 S&P는 2007년 9월 동국에 대한 외화표시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bank: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6년 5월 19일 수교 (북한과는 1976년 6월 1일)

□ 주요협정: 기술협력협정(1983), 어업협정(1992), 이중과세방지협정(1996), 차관약정(200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파푸아뉴기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PNG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8	31	34	정밀화학연료, 회전기기, 자동차
수 입	137	229	213	동광, 목재류, 석유제품, 금은
합 계	155	260	2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PNG와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70.5%와 66.6%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동광, 목재류 등의 수입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대 PNG 수출은 3,430만 달러, 수입은 2억 1,344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대 PNG 해외직접투자는 농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9년 3월 말 현재 24건, 9,249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기준)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PNG는 채광 및 채석 산업의 경기 회복과 건설업의 강세에 힘입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7.2%와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4.5%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민간소비 증가, 광업 및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강세, PNG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할 전망이다.
- 식료품 및 연료의 소매가격 급등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8%로 급등한 이후,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실시, 호주 달러 대비 키나화 환율의 상대적 강세,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 등으로 2009년에는 6.9%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정부의 개발지출 증가 등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과 수출가격 상승으로 정부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채관련 지표도 GDP 및 외환보유액 등의 증가와 외채 감소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소마레 총리는 여러 스캔들 연루 혐의 등으로 야당의 사임 압박을 받고 있으나, 야당의석수가 국회의 1/5에 불과하여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 사회불안 요소는 상존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